

 한국대기환경학회 <small>Korean Society for Atmospheric Environment</small>	報 道 資 料		http://www.kosae.or.kr
	배포일시	2016년 6월 3일(금) 총 3매	
배포기관 및 문의	사단법인 한국대기환경학회 ☎ 02-387-1400		
보 도 일 시	2016년 6월 4일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특별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제안한다.

- 한국대기환경학회(학회장: 인하대 정용원 교수)는 2016년 6월 3일 발표된 정부의 “국민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 대한 입장을 내놓았다.
- 1983년 설립된 한국대기환경학회는 회원수 3,200명 규모의 대기환경분야의 대표학회로서, 그동안 대기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학술교류 등을 통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해왔다.
- 한국대기환경학회는 정부의 미세먼지 특별대책에 대하여, 그동안 대기오염에 안일하게 대처해오던 정부가 폭스바겐 사건과 최근 미세먼지 고농도 사태를 경험하면서 대기질 개선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특별대책을 내놓은 점과 논란의 핵심이었던 경유차 규제를 강화하고 친환경차 확대를 추진하기로 한 점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그동안 논의해온 저감사업들을 취합하고 규모를 조정하는 수준의 대책을 내놓은 점에 유감을 표명하였다.
- 이와 함께, 미세먼지 대책에 머무르지 말고 대기질개선 종합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 위해 정부가 취해야 할 정책제안과 향후계획을 포함한 검토의견을 내놓았다. 또한 한국대기환경학회는 몇 차례에 걸쳐 그동안 이슈가 되었던 문제들을 살펴보는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문의 및 담당 : 조경두 홍보위원장 겸 부회장 (인천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연 락 처 : ☎ 010-8720-3486 / E-mail : kdcho@idi.re.kr

첨부: 정부 미세먼지 특별대책에 대한 의견(2쪽 분량)

첨부 :

(보도자료) 정부 미세먼지 특별대책에 대한 의견

한국대기환경학회

□ 총평 :

그동안 대기오염에 안일하게 대처해오던 정부가 폭스바겐 사건과 최근 미세먼지 고농도 사태를 경험하면서 대기질 개선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특별대책을 내놓은 것은 큰 진전이라 생각한다.

특히 논란의 핵심이었던 경유차 규제를 강화하고 친환경차 확대를 추진하기로 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그동안 추진되던 저감사업을 취합하고 규모를 조정하는 수준의 긴급처방식 대책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번 대책이 미세먼지 대책에 머무르지 말고 대기질개선 종합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 검토의견 :

1)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논의되던 에너지상대가격 조정이나 배출부과금 개선에 대하여 경제부처의 이의제기에 의하여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연기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 정부는 부처별 입장보다는 국민건강이 최우선이라는 생각을 빠른 시일 안에 합의된 정책으로 보여 주어야 한다.

2) 이번 대책은 대기질 개선에 대한 종합적 접근과 제안이 부족하다.

- 미세먼지 높다고 미세먼지 대책, 오존 높다고 오존 대책을 수립할 수는 없다. 이번 대책은 미세먼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이 대책으로는 앞으로 예상되는 이산화질소와 오존의 고농도 발생, 대기 중 유해화학물질 위험 증가에 역부족일 것으로 우려된다.

3) 대기오염 농도뿐만 아니라 대기위해도에 대한 고려와 대책이 필요하다.

- 현 대책은 대기오염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의 대기위해도를 낮추기 위한 노력과 대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그동안 클린디젤로 포장한 경유차 증가를 방치한 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

- 미세먼지 이외에 유해대기오염물질(휘발성유기화합물 포함) 항목을 확대하고 이를 모니터링하는 체계과 비상누출 시 대응책도 마련해야 한다.

4) 대기오염과 유해물질 배출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 미세먼지의 고농도 현상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기초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 관련 연구에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 대기관리정책 수립의 기초자료가 되는 배출자료의 신뢰도를 향상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업장 특히 소규모와 무허가 사업장의 대기오염과 유해물질 배출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정확한 배출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시급하다.

5) 석탄화력발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정책 의지에 공감한다. 하지만 최근 고체연료 사용량의 증가를 노후 석탄화력 몇 기를 폐쇄하는 것으로 대처하는 것은 미흡하다. 향후 석탄화력의 증대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되, 이를 대체할 원전 확대를 경계하며 신재생 에너지의 적극적인 확대가 필요하다.

6) 대기질 예보의 정확성 향상과 함께 대기오염 저감 대책의 실효성이 중요시 되어야 한다. 오염저감 대책 기술개발과 보급 확대에 더 많은 지원을 하여 대기질 예보가 대기오염 저감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7) 일부 언론에 의하여 비과학적이거나 과장된 내용이 단편적으로 보도되어 국민들에게 혼란과 공포감을 주는 것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한국대기환경학회에서는 대기오염에 대한 과학적 사실에 근거한 시민교육과 홍보를 통해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를 위하여 한국대기환경학회는 향후 몇 차례에 걸쳐 그 동안 이슈가 되었던 문제들을 살펴보는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혼란의 교훈을 기회삼아 함께 노력하다면, 대기질 목표를 달성하여 환경선진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